

# 해군기지 철근 몇t 실렸나... '화물 과다 적재' 밝혀야

## 풀어야 할 의혹들

### 침몰원인 화물과적·급변침 의구심 외부 충격 여부 등도 밝혀야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8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가 긴급 타전됐다. 세월호 참사의 신호탄이었다.

세월호에는 수하여행객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총 47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이 희생됐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불분명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5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선박 증축에 따른 복원성 부족, 최대 적재량의 2~3배에 이르는 화물 과적, 화물 고박(고정결박) 불량,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 등이라고 발표했다.

법원도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한 세월호는 증축공사 탓에 무게중심이 낮아졌다. 그러나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규정보다 1065t의 화물이 더 실렸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규정보다 더 적게 적재됐다. 화물은 부실하게 결박됐다.

재판부는 증개축과 과적, 부실한 고박으로 복원성이 약해진 세월호의 직접적 사고 원인은 급변침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 세월호 침몰 당시 실려 있던 화물량이 철근 410t을 포함해 총 2215t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화물 적재승인량 987t을 훨씬 뛰어넘는 무게다. 특조위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과적 철근의 상당부분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해군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는 지난해 12월25일 세월호 침몰원인은 외부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자로'는 "복원력 부족 등으로 사고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것과 다른 복원력 수치를 산출해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자로'의 주장을 일축했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논쟁과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혹들이 가시지 않으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게 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5명)와 희생자가족대표(3명)가 총 8명을 선출해 구성, 조만간 출범한다. 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와 함께 선체 인양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수행한다.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월호가 인양된 23일,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전국에서 찾아 온 추모객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올라 왔는데... 선체조사위 구성도 못한 정치권

### 희생자 유족 3명·국회 5명 추천 특별법...미수습자 가족도 추천권 요구

세월호는 떠올랐지만 참사 원인을 밝힐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은데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조사권한은 물론 선체 인양 지도와 점검, 미수습자 수습, 선체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정부가 21일 특별법을 공포했고 법률은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치권이 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세월호 인양과 동시에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특히 유족과 정부는 선체 절단 및 세부 인양 절차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뒤늦게 선체조사위 추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선체조사위는 국회와 희생자 가족 대표가 각각 5명, 3명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국회 몫의 5명은 자유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와 관련, 미수습자 가족들은 23일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 인근에서 열린 선상 기자회견에서 미수습자 가족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물을 추천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여·야당에 촉구했다. 가족들은 "생존자와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간에도 각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며 "소수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조사 위원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미수습자 찾는게 최우선"... 선체 절단은 유족 반발

### 해수부 세월호 수색 작업 준비...침몰 해저 4번 이상 살살이 뒤져

세월호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미수습자 수색 작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수부는 세월호 미수습자들이 있을 만한 대략적인 위치를 정해두고 선체가 확보되면 집중 수색할 방침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티타임을 하면서 세월호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색 계획 등을 설명했다.

현재 세월호가 침몰한 현장에는 250X150m 크기의 펜스가 설치된 상태다. 이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나 유류품이 빠져나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세월호가 안전하게 인양돼 이동하면 잠수부들이 투입돼 펜스 내 구역을 살살이 수색하게 된다.

잠수부들은 펜스 주변부터 시작해 안쪽으로 이동하며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조류 등으로 인해 유류품 등이 펜스 쪽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누워 있던 해저에는 잠수부들이 집중 수색을 하게 된다. 세월호가 3년간 바닷물 속에 있으면서 침몰 등을 통해 유실물 등이 흘러 내렸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세월호와 닿아 있던 해저면은 4번 이상 반

복 수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가 안전하게 목포 신항으로 옮겨지고 나서는 본격적인 선체 수색이 시작된다. 객실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부분적으로 떼어내는 방안, 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선택적으로 구멍을 뚫어 작업자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 선체 장문 쪽으로 비계를 만들어 접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 선체를 훼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 차관은 "세월호가 거꾸로 뒤집혀 선미부터 침몰하는 바람에 선미 객실부가 찌그러져 1~2m가량 압축된 상태"라며 "선체 절단 방안 등은 수색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미수습자들이 있을 만한 장소를 추정해 놓았다. 윤 차관은 "단원고 학생 하다운, 조은화 양 등 미수습자들의 위치는 목격자 증언 등으로 추적해 놓은 상태"라며 "하다운·조은화 양은 아무래도 선미 객실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색 준비가 끝나면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부터 바로 들어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선체 수색 전 과정을 촬영해 보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광주 학교 곳곳서 미수습자 마중 추념행사

3년 만에 돌아와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들을 마중하는 추념행사가 광주 학교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시교육청의 세월호 추념 행사는 크게 ▲추념 계기(契機) 교육 ▲광주학생 글쓰기 공모 ▲청소년 문화제 개최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으로 나뉜다. 계기 교육은 다음달 3일부터 광주 초·중·고 321개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계기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 추모관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추모 리본 달기(댓글 또는 추모의 글 올리기) 운동이 펼쳐지고 세월호 추모 자료를 공유한다. 교

육청 페이스북에서는 추모 댓글 이벤트가 열린다.

'잊지말자'는 세월호 참사 3주기 청소년 문화제는 다음달 15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고 4개월이 넘는 기간, 주말 금남로에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 뜻을 밝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엮은 기록·사진집도 만들어져 전시된다.

유·초·중·고교생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기리는 글쓰기 대회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열린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가슴 깊이 추모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교육적 성찰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는 추모 전화 연결음도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NAVER 조이투어 검색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복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복큐슈 정통〉	벋부·유추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복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복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빛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용1억원,국내상용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개인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시/가이드봉사료,선착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